

“신공항 건설, 교통망 혁신 기폭제 정부, 대구 도약위해 과감히 지원”

尹 대통령, 16번째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개항을 비롯한 교통망 혁신과 로봇·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 전진기지, 대구 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화의 중심 대구에서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발전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도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며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TK 통합 신공항 건설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서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TK 통합 신공항 연계 고속교통망 확충을 위해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 급행철도 건설(서대구-신공항-경북 의성 연결) ▲팔공산 관통 민자 고속도로 개통(동대구-동군위 접근성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K-2 공항 이전 부지도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교통이 결합된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군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대구가 AI와 빅데이터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계획 K-2공항 이전부지 산업거점 육성 AI·빅데이터 R&D 전진기지 조성 로봇기업 테스트필드 건립 등 추진

R&D 전진기지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에 대한 2000억원 투입 계획도 밝혔다.

이어 “대구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기계, 금속, 부품 산업을 토대로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가 대구의 산업을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며 “로봇 관련 기업들이 대구에서 편하게 개발과 실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테스트필드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성 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해 제조업과 디지털의 융합을 이끄는 R&D 핵심 거점으로 만들고, “8000억원 규모로 건립 예정인 SK 수성 알파시티 AI 데이터센터에서 AI 관련 대형 R&D 과제들이 연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내의 우수한 연구진과 기업들이 국제 공동연구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대구 첨단 산업 발전에 몰

코를 트겠다”며 “대구만의 주력 산업도 AI, 빅데이터를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여 고도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대구 서남부는 로봇과 모빌리티 산업 거점으로, 대구의 동부는 AI와 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키우고, 대구에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대구시가 수성 알파시티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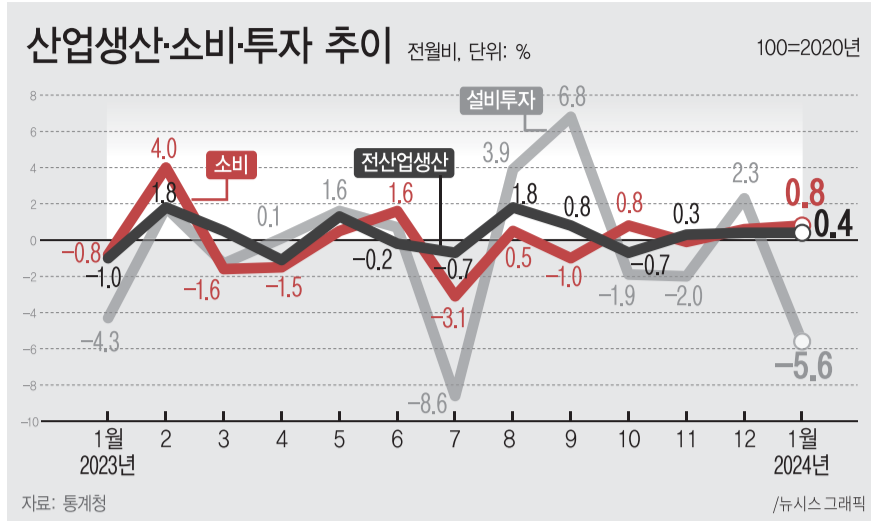
윤 대통령은 대구가 최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대구를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겠다. 대구 미래 산업을 키울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 인재들이 대구에서 일하며 대구·경북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으로 승격할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국가 재정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고, 대구 시내 중심인 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해 청년과 관광객들로 붐비게 만들겠다고 했다.

또, 대구를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을 약속했다.

이밖에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티오(TO)를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하겠다. 국립의과대학과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산업생산·소비 증가세 유지 투자, 6개월來 최대폭 하락

통계청, 1월 산업활동 동향
광공업·공공행정 생산 줄어듦
제조업 재고·출하비율 6.5%p ↑

국내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으로 늘어났다. 소비도 2개월째 증가한 반면 투자는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5%대)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 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등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1월 광공업과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건설업, 서비스업에서는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46.8%)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8.6%), 기계장비(-11.2%) 등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1.3% 뒷걸음쳤다. 통신·방송장비는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컸다.

제조업 출하는 통신·방송장비(25.0%), 석유정제(3.3%), 의료정밀화학(10.5%)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

(-32.6%), 기계장비(-11.6%), 기타운송장비(-19.9%) 등에서 감소해 전월보다 5.6% 줄어 들었다. 제조업 재고는 통신·방송장비(-25.5%)와 전자부품(-8.9%), 화학제품(-4.0%) 등에서 줄었다. 그러나 반도체(1.8%)와 기계장비(5.2%), 식료품(6.9%) 등에서 재고가 늘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0.8%로 전월 대비 6.5%포인트(p)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증가율이 높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수 자체로 보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11월(0.0%) 보합 이후 12월(1.1%) 늘었으나 올해 1월 증가폭은 0.1%에 머물렀다. 도소매(-1.0%)를 비롯해 예술·스포츠·여가(-8.9%) 등에서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4.9%), 부동산(2.6%) 등에서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지난해 11월(-0.1%) 하락한 이후 12월(0.6%)과 1월(0.8%)에 미약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분구조 복잡’ 분리 후 공동경영 가능성도

» 1면 ‘형제 간 책임경영’서 계속

차남인 조현문 씨가 일찌감치 관계를 끊은 상황, 사촌인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오렌 기간 형제간난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평화적으로 3세 경영을 시작하고 상속 지분 정리도 잡음 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지분 구조가 다소 복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장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이 효성 지주사 지분을 10.14%나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효성중공업(10.55%)과 효성화학(6.30%), 효성첨단소재(10.32%) 등 계열사에서도 대주주로 남아있다.

비상장사를 제외하고 시가 기준으론 계산하면 (주)효성 계열사인 효성중공업(약 2000억원)과 효성화학(약 1500억원) 지분이 약 2150억원, 신설지주인 효성첨단소재 지분이 약 1500억원으로 차이가 있다. (주)효성 지분도 약 1500억원, 분할 비율로 계산하면 조현준 회장에 2배 가량 많은 지분을

상속해야 한다. 때문에 양 지주사가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앞으로도 공동 경영을 이어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SK그룹과 SK디스커버리와 같이 지분 구조와는 관계 없이 같은 계열사를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양 지주사는 다른 계열분리 사례와는 달리 상당 부분 사업을 공유하고 있다. 효성화학과 효성티앤씨, 그리고 효성첨단소재는 효성그룹을 이끌어왔던 3대 계열사로 꼽힌다. 효성 계열사들이 해외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만큼, 미국 사업소와 비나물류법인을 보유한 신설지주와 관계를 끊기도 어렵다.

조현상 부회장 역시 효성토요타와 ‘더클래스효성’ 등 모빌리티 사업에도 높은 관심을 이어온 만큼, 전기차 충전소 필수 부품인 변압기와 미래 에너지인 수소 생산에 공을 들이는 효성중공업과 시너지도 기대할만 하다. (주)효성 완전 자회사인 FMK도 마세라티 등 자동차 판매와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김재용기자 juk@

한화 vs HD현대중, 7조원대 구축함 수주 갈등 고조

한화오션, 국수본에 고발장 제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 경쟁이 법정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한화오션은 KDDX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7일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행정지도를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 후 회사 내부망을 이용해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전경.

청은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 또는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를 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의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

죄행위마저 ‘꼬리 자르기’ 식 은폐 시도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최소 한도의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방위산업 모양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KDDX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6000톤급의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총 7조8000억원에 달한다. 개념 설계를 시작으로 기본설계, 상세 설계·조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 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양성운 기자 ysw@